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2호 【루게 제24775호】 주제103(2014)년 12월 28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1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접령해야 할 물고기잡이목표를 정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같이 간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 종업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수행하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과 후방일군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여식에 참석하시었다.

황병서 동지, 현영철 동지, 서홍찬 동지, 박영식 동지, 량철성 동지, 조경철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

들과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여식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참가자들은 선군혁명명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여식에

앞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가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 프락에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기대와 관심, 부러움속에 몇몇하게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들어와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받는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빛내

이자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오직 당만을 믿고 풍랑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면서 당이 제시한 올해 물고기잡이과제를 넘쳐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날에날마다 물고기보물고를 쌓아가고있다는 기쁜 소식은 최고사령관에게 큰 힘을 주었으며 조국보위초소에 귀한 자식들을 내세운 온 나라 가정들에 끝없는 희망과 앞날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하시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는 이번에 우리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이런저런 조건타발을 하던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 패배주의자들에게 사상적타격을 주었

한 인민들의 믿음과 신뢰심을 보위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의 걱정을 덜어주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해 온 한해동안 육체적부담을 이겨내면서 바다와 싸워이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올해 대고조투쟁에서 제일 위훈많은 투사들로 내세워주고 축복해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따라배우게 하여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일어난 불씨가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하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강조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그대로 스며여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당의 인민적시책이 토의되고 결정되는 우리 혁명의 뇌수와 같은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한해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전투적과업을 받아안게 되는것은 당중앙이 수산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은 영웅적 투쟁으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바다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있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다음해에 점령해야 할 물고기잡이목표와 군인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줄수 있게 물고기저장고 보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수산사업소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갖추는데

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불리한 여황조건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고 그 성과로 온 나라를 격동시키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기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통하여 수산부문에서부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갈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가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고있으며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책동을 더 악랄하게 벌리면서 우리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한 오늘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단풍》 호고기배들은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군함이며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공들이 잡아내고있는 한마리 한마리 물고기는 포탄 한발, 총탄 한발과 같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높이 발휘한 양양 전투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당창건 70돛이 되는 다음해에 더 화려한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도록 사회주의바다항기로 적대세력들에게 타격을 주고 련전련승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군들을 믿고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킬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는 데 앞장설것을 호소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키기 위한 방도는 당의 방침을 0.001mm의 편차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결사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당의 수산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가정들과 조국보위초소들에서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넘치게 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자고 하시면서 끝으로 강조하건대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혁명을 지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부문을 지키면서 인민군대 전투력강화를 위해 땀방울을 바치고 있는 최고사령관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금싸래기같은 전우들인 참가자들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시였다.

또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 가정들에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인사를 꼭 전달해줄것을 부탁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명을 인민무력부장인 륝군대장 현영철동지가 낭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군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

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열광의 박수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수여해주시신 당 및 국가표창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웅담 해야 할 일인 한 자기들을 값높이 평가하시고 온 세상이 부럽도록 내세워주시며 최상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겨워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참가자들과 함께 당기가 펄펄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청사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시신 하늘같은 믿음은 한생토록 간직하고 해마다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안아오도록 군인들에게 풍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빛나게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이 전문을 보내어 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신 3월에 즈음하여 각하와 그리고 조선인민과 함께 그이께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을 위하여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대한 정치경제적 및 사회개발전을 이룩하는데 헌신의 헌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이의 업적은 영생불멸할것입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라 무세베니

2014년 12월 15일 캄팔라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각하

제1비서각하

조선민족의 결속하고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령도자각하의 서거 3월에 즈음하여 노로돔 모니에트 시하누크대왕후 폐하와 캄보자인그 그리고 나 자신은 불굴의 애국주의와 고귀한 영웅주의로 조선인민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조선을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로 되게 하여주시어 력사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탁월하고 특출한 위인으로 영웅으로 영생하시는데 그이께 가장 경건하고 숭고한 뜨거운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각하께서 존엄을 위대한 아버지와 그이의 거룩한 위업을 받들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사임해나가실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이고 깊은 관계에 나 자신이나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대해 확인하는바입니다.

캄보자왕국은 귀국과의 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언제나 진심으로 노력할것입니다.

제1비서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캄보자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2014년 12월 16일 프놈펜

김정은 각하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각하께서 서거하신 3월에 즈음하여 부룬디공화국 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위로와 가장 깊은 경모의 정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굳은 결심을 확인합니다.

각하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부룬디공화국 대통령
베에르 은쿠룬지자

2014년 12월 17일 부줌부라

김정은 각하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3월에 즈음하여 정의를 로씨야당과 그리고 저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심심한 위문을 드립니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의 훌륭한 령도자이시였으며 조선인민의 성과와 승리의 고무자, 조직자이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수십년간 령도하여오신 조선로동당과 정의의 로씨야당사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국가관계정선에 부합되는 긴밀한 관계가 수립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두 나라와 그리고 정의의 로씨야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협조가 친선적인 우리 두 국가와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앞으로도 결실있게 발전되리라 기대합니다.

정의의 로씨야당 위원장
에스. 엠. 미로노브

2014년 11월 27일 모스크바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친애하는 동지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는 김정일동지의 서거 3월에 즈음하여 그이께 경의를 드립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의 강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쌓아올린 업적에 대하여 저희들 모두는 잊지 않을것입니다.

조선의 통일을 위한 그이의 발기는 국제공동체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이께서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진보를 위하여 제국주의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룩하신 업적을 회고하고있으며 그이의 위업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령도밑에 빛나게 계속되어나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뜻한 경의를 표합니다.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
에스. 쭈다카르 레디

2014년 12월 17일 뉴델리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오늘 조선인민과 외국의 벗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그이를 회고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그이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정일동지의 유훈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사회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게. 아. 쭈가노브

2014년 12월 17일 모스크바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께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3월에 즈음하여 풍교로동당은 그이께서 전체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들 위해 쌓아올린 잊지 못할 공적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 조선혁명에 무한히 충실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계승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의 헌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현명한 사상리론가이신 그이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발전 풍부화하셨습니다.

선군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을 고립정치시키려는 모든 음모들을 짓부실수 있는 국가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조선인민이 커다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위대한 선대수령들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해나가는것을 기쁜 마음으로 목격하고있습니다.

풍교로동당과 당원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웅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할것입니다.

평화로온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을 이끄시는 각하의 위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인민들사이의 친선 및 연대성관계를 강화해나갈 저의 의지를 각하께 재확인합니다.

건강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풍교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에르 은폴로

2014년 12월 17일 브라질

수필

태양의 미소

우리 인민에게 영원한 최고사령관복을 약속하며 12월의 날이 흐르고있다.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미소로 맞이하신다.

이 땅의 그 어디에서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신다. 천만제자들의 마음속이아기를 들어주시고 신심과 용기도 주시며 휘황한 태양을 축복해 주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12월이면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전하는 이야기 가 소중한 추억을 불러온다.

언제인가 유럽에서 열린 국제화초전시회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1등의 단상에 올랐을 때였다.

한없는 경관속에 김정일화를 바라본 사람들은 육종전문가에게 이 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고 물었다.

육종전문가는 사랑과 열정에 넘친 위인의 웃음, 애국적인 위인상을 꽃에 담았다고 스스로없이 대답하였다고 한다.

위인의 웃음을 담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단상에 오른 불멸의 꽃 김정일화, 그날의 전시회장에 굽이친 매혹과 흥분의 경정은 위대한 아버지의 태양의 미소를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얼마나 북돋아주었는가.

끝없는 애국으로 만사환의 심장을 끌어당기는 절세위인의 그 미소는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랑과 열정의 분출이었다.

그이의 거룩한 한평생이 태양의 그 미소와 뜨겁게 어여웠다.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것을 제일가는 탁오로 여기신 우리 장군님.

인민의 기쁨과 행복은 그대로서 아버지장군님의 더없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그 어디에 가서이셔도 그이의 첫 물음은 언제나 인민이 좋아하는가였고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아무리 자그마한것이라도 그토록 기뻐하시며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였다.

좋은 날, 기쁨 때에만 지으신 웃음이었었다.

어떻고 힘들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웃으시였다.

가는 길 힘찬해도 웃으며 가자,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는 영웅담이 없는 배짱과 포항함이 담긴 백두산장군의 웃음.

백두의 눈보라처럼 시원과 난이 판을 앞장서 헤치고 승리의 돌과구를 열어나가시던 날애

도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나 웃으시였다.

그이의 웃음에는 힘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린 최전열을 찾았을 때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령장께서 지으신 미소는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 초병들에게는 멸적의 힘과 용기가 샘솟게 하였다.

아버지장군님의 환하신 웃음을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 혁명적량만과 열정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태양의 미소를 지으셨기에 조국은 언제나 락관과 약동에 넘쳤고 인민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자라나 선군시대를 세상에 떨치며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 높이 울려퍼 있을것 아니라.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을 위해 겪으신 아버지장군님의 천만 고생이 그 미소속에 다 어려있어 태양을 우러를 때마다 더 웃뜨기름에 가슴껏어드는 우리

들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장군님의 애국적인 미소에 대한 청중의 목소리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사랑과 열정의 미소, 신념과 락관의 미소, 담력과 배짱의 미소... 인류의 대성인의 그 미소는 오직 하나를 위해서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정녕 아버지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웃음을 지으시였다.

시련과 난관, 기쁨과 피로속에서 그 애국적인 미소에 다 담으시고, 인민을 위한 웃음이라는 의미를 새길수록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더욱더 세차게 타오른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로움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찬탄한 길이 모실 맹세의 불길이라.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미소속에 계신다.

태양의 미소는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으로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삼지연못가에 세워져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무기

은 나라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심드높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작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시기를 발표하신 2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78(1989)년 12월 28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본질과 내용, 그를 높이 발양시키나가기 위한 파업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김일성민족의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있으며 강한 민족적자존심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앞당겨 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자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비록 작은 나라와 민족이라 하더라도 자기 민족이 남남 못지않게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분발하여 일떠서는 민족은 흥하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

은 쇠퇴의 길로 끌려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고립압박책동과 그처럼 어도 높은 고난의 행군을 겪는 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당당히 솟아오를수 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힘차게 투쟁해왔기때문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단결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수령, 당, 대중의 단결의 공고성에 나라와 민족의 전도가 달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가운데서도 가장 큰 긍지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한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인민은 장구한 날애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천만리길을 뜻뜻이 걸은 인민이

다. 우리 인민은 천체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뛰어난 품목을 지닌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것을 최대의 행운으로,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당의 품속에서 혁명하는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간직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천정만경의 성체를 이루고 끝까지 뜻과 운명을 함께 해나가는것을 생활신조로, 자신들의 삶의 근본요구로 여기며 살고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매혹되어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다그쳐나가는 오늘 더욱 숭고한 높이를 이루고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있으며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인민중시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고 따라서온 품에 천만군민 모두가 달려가 안기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뜨겁게 비껴 있다.

대를 이어 수령과 장군복을 누리며 살며 투쟁하는 긍지와 영예, 여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근본바탕이 있

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공고성과 불패의 위력이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해나가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제힘을 믿는 인민에게 있다. 자기 민족의 무궁무진한 힘이 제일이고 자기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투쟁하는 인민에게는 불가 능이란 없다.

우리 식은 곧 주체적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지닌 확고한 신념이다.

우리 인민이 어려운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사회주의의대를 끝까지 고수하고있는것은, 경제와 문화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고 국방력을 우리 식으로 더고 있다.

우리는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간직하고있는데 근본비결이 있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바쳐 마련해놓으신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우리 식으로 건설해나가는것이 우리 사회주의혁명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위대하며 우리 식으로만 가능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쳐물러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확고도 우리 식대로 열어나가고계신다.

무슨 일이나 착상된 설계도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우리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전되는

실천도 우리 힘, 우리 식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펼쳐져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창조적세계이다.

우리의 힘, 우리 식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가 자력갱생에 기초한 최첨단과학의 전진선봉이 되었고있다.

우리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경제강국, 문명강국이 건설되고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 우리 식대로 투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민족번영을 위한 길이다.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혁명정신과 창조방식으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을 공지로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남에게 뒤떨어지는것을 수치로 여기고 분발하여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은 남들이 수세기를 거쳐 수행한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하게 하였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우리 혁명과 건설의 년과 대를마다에 발휘된 천리마속도와 인민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여주고있다. 당이 결심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기념비적전적목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가는 곳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들이 날에날마다 창조되고있다.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비판하거나 주저않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 따라앞서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이런 세계적인 기적을 안아오고

있는것이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강인담대한 배짱,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는 세계를 보는 주체의 신념과 의지, 무엇을 하나 만들어내도록 창조력으로 새롭고 발전적인것을 창조해내는 완강한 투쟁기풍,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배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요양, 김정일에국주의요양, 신념요양, 계급요양, 도덕요양을 강화하도록 하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여주고계신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신것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더욱 깊이 심어 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끝없이 번영하게 될 조국의 태일에 대한 크나큰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있으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업을 만방에 떨쳐나갈 불타는 각오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넋원대로 내나라, 내 조국을 통성언명하는 사회백배, 기세충천하여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 따라앞서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이런 세계적인 기적을 안아오고

인간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진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에 대한 각계의 반향

대관땅에 울려 퍼진 노동당만세 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리에 서로 들고 이ZZ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분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22일부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의 초점인물로 된 립송미는 대관군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노동자 처녀이다.

그가 다니는 공장과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을 비롯하여 대관군의 많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평범한 노동자 처녀를 위해 바쳐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대관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연을 알고있다.

이미 알고있었지만 이번에 《로동신문》을 통하여 은 나리에 널리 전제되고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미용의과 과장 립원동동무와 송미가 일하는 공장초급당비서 리춘일동무의 소행이 전당의 일군들과 당원들, 은 나라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 시각 대관군사람들의 심정은 더욱 격동적이다.

그들은 립송미가 당한 불행에 제일처럼 가슴아파하였고 그의 안남을 두고 제 자식이나 친동생의 일인도 걱정하였다.

하지만 초기에는 화성이 너무 심하여 누구나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런 송미에게 립원동동무를 비롯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사랑과 정성을 다

하여 얼굴을 팔팔내 찾아주었으며 그가 일하는 공장의 리춘일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은 치료의 나날 친절속보다 더 극진한 정을 쏟아주었다.

한해가 다그 달라져가는 송미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대관군 사람들은 우리 사회주의보국제도의 고마움을 시사각각 사무치게 절감하였으리 사람이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우리 도의 한 지역인 대관군에서 벌어진 이 가슴뜨거운 사실은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정치철학을 떠나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사상할수도 없는 또 하나의 인간사랑의 전설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환자를 위해 피와 살을 바치는것이 너

무도 평범한 일로 되고있으며 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이 매일같이 아름답게 꽃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낼수도 만들어낼수도 없고 영원히 가질수도 없는 귀중한것, 우리의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닌 참된 인간사랑과 헌신의 불씨가 공기처럼,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이런 아름다운 전설이 끊임없이 태어날수 있다.

산골짜기에 있는 립송미의 작은 집에서도 높이 울리는 로동당만세소리는 대관군인민들의 심정을 세차게 흔들고있으며 우리 도와 은 나라 인민들의 격정을 더욱 북돋아 주고있다.

납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는 사회, 한 사람의 아픔이 전체 인민의 관심사로 되는 나라, 누구든지 불행에 처하면 천만의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친형제가 되는 훌륭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 만세, 이런 인간사랑의 대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의 혜명이 하늘을 울리고있다.

립원동동무와 같은 참다운 보건의료일군, 리춘일동무와 같은 훌륭한 당일군들이 억척같이 떠돌아다니는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은 나라 인민은 심정의 목소리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황관석

천리마시대 그날이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야말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최고의 인도주의이며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최고의 애국주의입니다.》

《로동신문》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의 사실이 만사람의 심장을 뚫어잡고있는 이 시각 나의 눈앞에 우뚝이 선것은 은 나리의 자애로운 영성이다.

지금으로부터 53년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에 자라난 천리마시대 보건의료일군의 불모다 더 뜨거운 사랑과 정성에 의하여 이 땅에 다시 태어났다.

3도화상면적이 전진의 48%로서 생명이 경각에 달하였던 나를 위해 우리들의 참된 천리마들은 피와 살을 아끼지 않았다.

《양하수소년의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피를 넣어줄다.》

《하수에게는 살이 필요요. 나는 내 살을 필요로 하지않고 살을 걸칠수 없소.》

의식을 잃은 나의 침상결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다. 참된 인간사랑으로 눈부는 심정의 붉은 피들이 나의 피줄로 흘러들었고 주체사상을 체제화한 참된 인간들의 귀한 살이 나의 몸을 덮었다.

제가 죽음에서 구원된 사실을 아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몸소 편지를 보내시어 홍남비로공장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합종의학대학 학생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유능한 의사와 약품을 보내주시고 저에게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었다. 당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나의 건강을 녀려하는 1만여명의 편지들이 날아왔고 각계층 인민들이 보내는 수많은 약과 식료품들이 건강회복에 이바지되었다.

나는 지금도 나를 생생시켜준 당과 수령에게 드리는 꽃다발을 안고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시는 주체단으로 달려가면 계속 잊을수 없다.

합동저리를 메우던 수십만 시위대렬도 멈추고 만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목에 삼키던 그 순간 단숨에 제단을 달려올라간 나는 환희와 격정으로 부풀어오르는 가슴에 안은 꽃다발을 아버지수령님께 정중히 드리고 소년당원들을 힘차게 울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망하수로우나, 어디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시며 저를 붙여 안아 올려 주시던 단숨에 안았시였다.

수십만 대중은 《김일성원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하늘방향이 울려들듯 환호성을 울리며 꽃다발을 흔들고 기발을 펼칠 뉘날이었다. 그렇게 은 나리의 아버지수령님의 따스로운 품에 안긴 나는 어린 마음에도 영광과 행복이 북받쳐 올라 손을 막 흔들었다.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로동당의 아들이라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로부터 세월은 반세기를 넘어 흘러왔지만 인간을 제일로 여기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있으며 천리마시대 인간사랑의 서사는 년대를 넘어, 세대를 이어 더욱 즐거우고 풍만하며 거대한 흐름을 이루어 왔다는것을 나는 오늘 새삼스럽게 절감하고있다.

산골짜기의 로동자처녀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세계적으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미용의과학의 첨단영역을 돌파해나간 립원동동무의 이악하고도 정열적인 투쟁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날로 더욱 승화된 우리 나라 보건의료일군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체험자, 목격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군시대에 이렇듯 훌륭한 인간사랑의 기사, 참된 보건의료의 전행이 태어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초급당비서 방 하수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는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두 기사를 몇번씩이나 곱씹어 읽어보았다. 그럴수록 립원동동무야말로 인간사랑, 인간존중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평범한 노동자 처녀를 위해 바쳐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대관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혁명동지를 위해, 전우들을 위해 피와 살,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친 전제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떠러배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시대 보건의료일군의 리얼이 맑고 깨끗한 향기를 띠고있었다.

하기에 립원동동무는 하루에 수십명의 환자들을 대상하고 수술도 진행하면서 가정일을 돌보아야 하는 내성의 몸이지만 한두해도 아닌 기나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의 아름다운 서사를 변함없이 수놓아올 수 있었었던것이다.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은 립원동동무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우리 시대 보건의료일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로 가슴 벅채우고있다.

립원동무! 인제나 이런 몸풀에 자신을 세워보며 환자들로 하여 정성의 불길을 세계 지평으로 퍼뜨려라 《하나는 전제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애써 일하겠다. 하여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신경전문병원 부원장 김 영희

로동계급의 세상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지난 22일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를 곱씹어 읽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기사 그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간사랑의 사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이기때문이다.

정말이지 읽으면 읽을수록 어머니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 사회주의 내 조국의 귀중함과 고마움이 목이 메어울뿐이다.

대관땅의 로동자 처녀 립송미, 한향 피어하는 꽃송이와도 같은 19살의 애 어린 처녀였던 그녀가 만약 사랑과 건강이 모두 돈에 의해 팔려버린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것은 명백하다.

사회의 약자, 무권리한 노동자 인구에 속할것이 시들어야 할 자기의 처지를 슬퍼하며, 불행한 자기 운명과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제도를 끝없이 저주하며 아마도 생을 포기했을것이다.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우리 사회주의가 만들어 주었다. 평범한 로동자 처녀의 오늘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우리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로동계급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우리 조국방위에 역사에 길이 전할 사랑의 새 전설을 끊임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사회주의조국과 나!

우리는 남마다 이런 향심의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며 립원동동무와 같이 참된 보건의료일군에게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을 위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구성시도시건설사업소 로동자 리 은 심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는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두 기사를 몇번씩이나 곱씹어 읽어보았다. 그럴수록 립원동동무야말로 인간사랑, 인간존중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평범한 노동자 처녀를 위해 바쳐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대관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혁명동지를 위해, 전우들을 위해 피와 살,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친 전제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떠러배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시대 보건의료일군의 리얼이 맑고 깨끗한 향기를 띠고있었다.

하기에 립원동동무는 하루에 수십명의 환자들을 대상하고 수술도 진행하면서 가정일을 돌보아야 하는 내성의 몸이지만 한두해도 아닌 기나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의 아름다운 서사를 변함없이 수놓아올 수 있었었던것이다.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은 립원동동무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우리 시대 보건의료일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로 가슴 벅채우고있다.

립원동무! 인제나 이런 몸풀에 자신을 세워보며 환자들로 하여 정성의 불길을 세계 지평으로 퍼뜨려라 《하나는 전제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애써 일하겠다. 하여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신경전문병원 부원장 김 영희

로동계급의 세상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지난 22일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를 곱씹어 읽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기사 그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간사랑의 사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이기때문이다.

정말이지 읽으면 읽을수록 어머니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 사회주의 내 조국의 귀중함과 고마움이 목이 메어울뿐이다.

대관땅의 로동자 처녀 립송미, 한향 피어하는 꽃송이와도 같은 19살의 애 어린 처녀였던 그녀가 만약 사랑과 건강이 모두 돈에 의해 팔려버린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것은 명백하다.

사회의 약자, 무권리한 노동자 인구에 속할것이 시들어야 할 자기의 처지를 슬퍼하며, 불행한 자기 운명과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제도를 끝없이 저주하며 아마도 생을 포기했을것이다.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우리 사회주의가 만들어 주었다. 평범한 로동자 처녀의 오늘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우리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로동계급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우리 조국방위에 역사에 길이 전할 사랑의 새 전설을 끊임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사회주의조국과 나!

우리는 남마다 이런 향심의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며 립원동동무와 같이 참된 보건의료일군에게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을 위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구성시도시건설사업소 로동자 리 은 심



고향민을 위한 사랑의 선물로,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구성시도시건설사업소 로동자 리 은 심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는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두 기사를 몇번씩이나 곱씹어 읽어보았다. 그럴수록 립원동동무야말로 인간사랑, 인간존중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평범한 노동자 처녀를 위해 바쳐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대관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혁명동지를 위해, 전우들을 위해 피와 살,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친 전제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떠러배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시대 보건의료일군의 리얼이 맑고 깨끗한 향기를 띠고있었다.

하기에 립원동동무는 하루에 수십명의 환자들을 대상하고 수술도 진행하면서 가정일을 돌보아야 하는 내성의 몸이지만 한두해도 아닌 기나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의 아름다운 서사를 변함없이 수놓아올 수 있었었던것이다.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은 립원동동무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우리 시대 보건의료일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로 가슴 벅채우고있다.

립원동무! 인제나 이런 몸풀에 자신을 세워보며 환자들로 하여 정성의 불길을 세계 지평으로 퍼뜨려라 《하나는 전제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애써 일하겠다. 하여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신경전문병원 부원장 김 영희

로동계급의 세상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지난 22일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를 곱씹어 읽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기사 그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간사랑의 사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이기때문이다.

정말이지 읽으면 읽을수록 어머니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 사회주의 내 조국의 귀중함과 고마움이 목이 메어울뿐이다.

대관땅의 로동자 처녀 립송미, 한향 피어하는 꽃송이와도 같은 19살의 애 어린 처녀였던 그녀가 만약 사랑과 건강이 모두 돈에 의해 팔려버린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것은 명백하다.

사회의 약자, 무권리한 노동자 인구에 속할것이 시들어야 할 자기의 처지를 슬퍼하며, 불행한 자기 운명과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제도를 끝없이 저주하며 아마도 생을 포기했을것이다.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우리 사회주의가 만들어 주었다. 평범한 로동자 처녀의 오늘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우리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로동계급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우리 조국방위에 역사에 길이 전할 사랑의 새 전설을 끊임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사회주의조국과 나!

우리는 남마다 이런 향심의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며 립원동동무와 같이 참된 보건의료일군에게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을 위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구성시도시건설사업소 로동자 리 은 심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는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두 기사를 몇번씩이나 곱씹어 읽어보았다. 그럴수록 립원동동무야말로 인간사랑, 인간존중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평범한 노동자 처녀를 위해 바쳐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대관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는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두 기사를 몇번씩이나 곱씹어 읽어보았다. 그럴수록 립원동동무야말로 인간사랑, 인간존중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평범한 노동자 처녀를 위해 바쳐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대관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혁명동지를 위해, 전우들을 위해 피와 살,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친 전제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떠러배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시대 보건의료일군의 리얼이 맑고 깨끗한 향기를 띠고있었다.

하기에 립원동동무는 하루에 수십명의 환자들을 대상하고 수술도 진행하면서 가정일을 돌보아야 하는 내성의 몸이지만 한두해도 아닌 기나긴 8년세월 사랑과 정성의 아름다운 서사를 변함없이 수놓아올 수 있었었던것이다.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은 립원동동무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우리 시대 보건의료일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로 가슴 벅채우고있다.

립원동무! 인제나 이런 몸풀에 자신을 세워보며 환자들로 하여 정성의 불길을 세계 지평으로 퍼뜨려라 《하나는 전제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애써 일하겠다. 하여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신경전문병원 부원장 김 영희

로동계급의 세상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을 위한 나라입니다.》

지난 22일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를 곱씹어 읽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기사 그자체가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간사랑의 사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이기때문이다.

정말이지 읽으면 읽을수록 어머니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 사회주의 내 조국의 귀중함과 고마움이 목이 메어울뿐이다.

대관땅의 로동자 처녀 립송미, 한향 피어하는 꽃송이와도 같은 19살의 애 어린 처녀였던 그녀가 만약 사랑과 건강이 모두 돈에 의해 팔려버린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것은 명백하다.

사회의 약자, 무권리한 노동자 인구에 속할것이 시들어야 할 자기의 처지를 슬퍼하며, 불행한 자기 운명과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제도를 끝없이 저주하며 아마도 생을 포기했을것이다.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우리 사회주의가 만들어 주었다. 평범한 로동자 처녀의 오늘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우리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로동계급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우리 조국방위에 역사에 길이 전할 사랑의 새 전설을 끊임없이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사회주의조국과 나!

우리는 남마다 이런 향심의 물음을 스스로 제기하며 립원동동무와 같이 참된 보건의료일군에게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을 위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구성시도시건설사업소 로동자 리 은 심

당보에 실린 기사 《이런 아름다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우리가 산다》는 지금 우리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모두 기사를 몇번씩이나 곱씹어 읽어보았다. 그럴수록 립원동동무야말로 인간사랑, 인간존중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평범한 노동자 처녀를 위해 바쳐진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대관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 진행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가 김정일각하추모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 주최로 17일에 진행되었다.

파키스탄 카라치의 본토론회 장전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졌으며 그안에 꽃바구니들이 놓여있었다.

또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각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추모위원회 주최로 진행되는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인터넷토론회 주제 103(2014)년 12월 17일이라는 글방이 걸려있었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각하의 영생을 기원합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각하의 존함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라는 글방이 토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본토론회에는 파키스탄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전 배발정부 수상 마다바 꾸마르 네팔의 전문이 소개되었으며 이어 위대한 김정일평도자를 추모하여, 《김정일각하의 선군평도》,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세계가 공인하는 정치가》, 《김정일각하와 오늘의 조선》, 《김정일각하께서는 영생하신다》 등의 제목으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타이, 페루,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스리랑카, 일본 등 15개 나라의 근 30명의 각계 인사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반대성단체, 주재사상연수조직책임자 그리고 김정일각하추모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인사들이 토론했다.

파키스탄국회 상원 의원들인 아드라 지프와 사이드 가니는 조선혁명과 온 세계 자주화위업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다.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장립위원회 위원장 라호마와 마 수카르노부프리는 김정일각하는 주재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봉부하시키고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였으며 조선을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 시키시어 강성병영의 세계적인 힘을 이룩하시였을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위대한 혁명가가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만 알하다 이슬람교전경기구 위원장 하디 가포리는 김정일각하는 정의와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천재적인 사상가 리론가이시라고 칭송하고 만민의 다함없는 호모를 받으시는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업적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더블유.에이.두민 두와르다네는 조선인민의 최고평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실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그의 현명한 평도자 있기에 조선인민은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혁명적업적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직서기장 레이몬드 피그슨은 12월 17일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슬픔과 비애의 날이며 김정일각하

의 혁명업적과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한 선군정치 역동력에 대하여 회고하는 날이다. 김정일각하는 투쟁속에서 탄생하시어 투쟁으로 생을 마친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혁명가가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만 알하다 이슬람교전경기구 위원장 하디 가포리는 김정일각하는 정의와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천재적인 사상가 리론가이시라고 칭송하고 만민의 다함없는 호모를 받으시는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업적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더블유.에이.두민 두와르다네는 조선인민의 최고평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실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그의 현명한 평도자 있기에 조선인민은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혁명적업적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직서기장 레이몬드 피그슨은 12월 17일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슬픔과 비애의 날이며 김정일각하

의 혁명업적과 조선의 사회주의를 수호한 선군정치 역동력에 대하여 회고하는 날이다. 김정일각하는 투쟁속에서 탄생하시어 투쟁으로 생을 마친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혁명가가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만 알하다 이슬람교전경기구 위원장 하디 가포리는 김정일각하는 정의와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천재적인 사상가 리론가이시라고 칭송하고 만민의 다함없는 호모를 받으시는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업적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더블유.에이.두민 두와르다네는 조선인민의 최고평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실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그의 현명한 평도자 있기에 조선인민은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혁명적업적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전직서기장 레이몬드 피그슨은 12월 17일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슬픔과 비애의 날이며 김정일각하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김정일각하께서 력사의 발걸음의 행복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뛰어난 사상리론적예지와 평도자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시어 조선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주시였으며 인류의 리상이 실현되는 새 사회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제국주의권력해방의 강권과 진흥에 맞서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덕정치를 펼쳐시어 만사만물의 심장을 틀어잡으시였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귀중히 여기시고 인간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장그러 바치시였다.

김정일각하는 강성조선의 건설과 온 세계의 자주화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사상의 명과, 위대한 정치가, 천재적인 선군령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였다.

김정일각하의 서거 3돐을 맞아 그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김정일각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이 세계 정의와 평화, 인류자주화위업에 담보되는 가장 고귀한 유산으로 된다고 간주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선군적의 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조그마한 선군주의에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업적을 위인으로서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품모를 지니신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고있으며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의 강성국가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은 확정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진보적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자주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정치철학과 뛰어난 령도예시로 세계정치를 주도하시어 정의와 평화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김정일각하를 칭송하는 다양한 활동을 민족적, 지역적, 국제적범위에서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자.

력사에는 위인들이 적지 않다. 김정일각하처럼 한생을 장그러 다 바쳐 자기 조국을 빛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진보에 이바지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정치가를 모른다.

여러 계기와 가능성을 리용하여 세계정치사에 특기할 김정일각하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집회, 영화감상회, 사진 전시회, 강연회, 좌담회, 연극, 성명서 담화발표, 글씨 등 다양한 활동을 실정에 맞게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자.

2. 김정일각하의 생전의 념원과 뜻을 현실로 펼쳐가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성공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이에 범함없는 지지와 반대성을 보내자.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을 오늘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고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인민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다음해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경축준비위원회들을 내오고 김정일주석께서 창건하시어 김정일각하께서 빛내어주시신 선군조선의 현실을 소개하고 찬양하는 정치문화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평양에서 진행되는 경축행사들에 대표단들을 보내어 국제적인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자.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만년제시 35돐을 맞아 6월부터 10월까지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반대성기간》으로 정하고 김정일각하께서 정립하여주시신 조국통일 3대원장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반대성운동을 적극 벌리자.

온갖 지배와 예속, 불평등이 없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는 조선의 참모습을 널리 소개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동과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세의 부당성과 비합성을 폭로하는 활동을 광범히 벌리자.

우리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친선 및 반대성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다.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업적을 영원불멸할 것이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반대성 만세!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

2014년 12월 17일 파키스탄 카라치

김일성 - 김정일주의의 학습토론회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총련일군들의 학습토론회가 각지 총련조직들에서 진행되었다.

총련 사이타마현본부 학습토론회가 18일 본부회관에서 있었다.

한동성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선진문화교과장과 조일연 총련 사이타마현본부 위원장, 본부한글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자들은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온 사회

를 김일성주의의 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평도하시어 혁명과 건설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을 양보도 없이 굳건히 이어가시는 영예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화국의 유일무이한 지도적지침으로 신화발전시키시겠다고 격찬하

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학습은 그를 구현한 주체적해방외교포문동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상사업을 앞세우며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애국애국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총련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 평도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우고 사상의 힘, 일상 단결의 위력으로 그 어떤 풍파

에 이겨내며 애국애국운동에서 새 세대가 선봉대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할것이라고 엄명하였다.

한편 총련 가나가와현본부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발언자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하신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것을 동포들을 위하여, 동포군중에게 의거하여 헌신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도 이겨내며 애국애국운동에서 새 세대가 선봉대적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할것이라고 엄명하였다.

한편 총련 가나가와현본부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발언자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라고 하신 평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것을 동포들을 위하여, 동포군중에게 의거하여 헌신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16일과 17일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대원수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회에 인디아정부부총리, 몽골 외무성 국무부총리, 몽골인민혁명당 국제비서, 내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내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총비서, 내팔주체연구소 부소장, 방글라데시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시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시인민혁명 위원장, 이만 알하다 이슬람교전경기구 위원장, 이만 다이아드프사 부사장, 도이힐만드조선의원단 회 제1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페루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페루사회혁명당 총비서, 페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 메히코인민사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등 여러 나라의 수많은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알제리 여러 정당, 단체 대표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까빈다주위원회 제1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페루 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페루사회혁명당 총비서, 페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 메히코인민사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등 여러 나라의 수많은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략군들을 징벌하는것은 당연한 권리

세상적 비롯 여든까지 간다고 결심하면 동족을 결코고는 피뢰부수배당의 체질적악이 또다시 발각하고있다. 얼마전 피뢰당국은 외국부대 변인을 내세워 미국이 《스리 픽처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해킹사건을 《북소행》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주목》한다. 지난해 3월 남조선의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류사한 수법》이라는 워니 하면서 상전이 퍼뜨리는 반공화국모략론에 적극 동조해나갔다. 한편 피뢰당국은 최근에 발생한 저들의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한 해킹사건도 무작정 우리와 연결시키고있다. 며칠전 피뢰당국 부장관은 《주체》에서 원자력발전소 정보유출사건이 《북소행》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떠들었다. 피뢰당국사단장제리들은 친일자가 《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북소행》임을 정당화하는 소가 웃다 꾸메미러질 추태도 부렸다. 지금 피뢰들은 미국과 남조선에서 편이여 일어난 해킹사건들과 관련하여 그 누구의 《사이버테러》에 대해한다고 고이대면서 청와대와 군부까지 비상태세에 돌입시키고 정보작전방호태세를 두단계 높인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대폭 늘린다 하면서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남조선피뢰들이 운운하는 그 무슨 《북소행》이란 터무니없는 날조설이다. 그것은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합리화하고 우리를 헐뜯기 위해 꾸며낸 또 하나의 모략에 지나지 않는다.

주권국가에 감히 범죄행위를 피우려면 증거부러 명백히 내놓아야 한다. 우리에게 한국과 사이버테러모략자를 불러려 하는 미국도 이렇다 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들은 그 누가 인정조차 하지 않는 허황한 추리에 기초하여 《북소행》설을 집요하게 운운하고있다. 사대와 굴종에 항거하고 상건의 비위를 맞추고 동족을 모해하고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계속 악덕지침을 하는 피뢰들의 망명은 미처도 막지못한 미친 역적행위라는 추악한 꼴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여준다.

지난 시기에도 피뢰들은 남조선에서 추악사건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억지로 우리를 끌고들었다. 지난해 3월 20일 남조선에서 《KBS》, 《MBC》, 《YTN》을 비롯한 방송언론들과 크고작은 금융기관들이 연속적인 사이버공격을 받아 수많은 봉사기술과 컴퓨터들이 파괴되고 업무가 마비되는 《사상초유》의 대혼란이 발생하자

를 김일성주의의 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평도하시어 혁명과 건설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을 양보도 없이 굳건히 이어가시는 영예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화국의 유일무이한 지도적지침으로 신화발전시키시겠다고 격찬하

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학습은 그를 구현한 주체적해방외교포문동사상을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상사업을 앞세우며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애국애국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총련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 평도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우고 사상의 힘, 일상 단결의 위력으로 그 어떤 풍파

달밤에 찾아오는 미친개와 무당이 다르다

피뢰당국이 미국과 함께 꾸며낸 그 무슨 《북인권》문제를 여가치기 들고다니다 여문화화외교반공화국모략론에 의거하여 되어 날뛰고있는것을 보니 동족대결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놈들이다.

이 세상에 가장 극악한 인권의 향초들이 그 누구의 《인권》이 어찌나저찌나 하며 주절대는것이 그야말로 가소롭고 후한 무지하기 그지없다. 피뢰당국이 그 범죄적행위의 관을 날로 확대하면서 우리 친한관군의 생명인 최고존엄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발악하는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원래 자연의 아름다운 운치를 모르는 미친개와 달밤에 놀이 솟은 달을 보고도 변이 난듯이 어는다는 법이다. 피뢰당국의 추태가 그와 다르겠이 무엇인가.

미제야수들이 조선민족에게 강행한 반인륜적범죄와 남강도적인 인권유린만행은 인류역사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당국이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의 폭주차가 되어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대결소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으니 이자들의

모략아래에 과연 조선민족의 피가 흐른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미친개는 사정보지 말고 몽둥이로 조그마히 하는것처럼 미국 역적의 무리는 지대없이 모조리 박멸해치워야 한다.

이놈들을 그냥 두면 우리 민족이 언제 무슨 화를 당할지 알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인간추물들

오늘도 아무런 근심걱정이 학습에 열중하는 우리 학생들의 행방부터 모습을 보느라 느닷없이 남조선의 진도알바에서 꽃망울도 터쳐보지 못한 수백명의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물속에 수장된 사건이 생각나 가슴아픈 심정을 금할수 없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저주로는 남녘땅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아마 그 억울한 죽음을 우리 아이들도 당했겠지.

생애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고통과 피뢰당국을 울분에 넘쳐 단죄구판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그 남조선에 차일철 때 우리 공화국에서는 그와 같은 판이한 화로써 현실이 펼쳐졌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이런 희한한 광경과 너무도 대조되는 《세월》호대항사를 빛낸 피뢰당국이 무슨 할말이 있어 낯뜨름 쳐놓고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끌고다니는가. 피뢰들이 남조선과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철면피한 인간추물들이다.

원수들이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신심드높이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헤치려는 창가마니에서 배운의 글소리가 더 울려나오게 하였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교장 립창호

이런 희한한 광경과 너무도 대조되는 《세월》호대항사를 빛낸 피뢰당국이 무슨 할말이 있어 낯뜨름 쳐놓고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끌고다니는가. 피뢰들이 남조선과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철면피한 인간추물들이다.

원수들이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신심드높이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헤치려는 창가마니에서 배운의 글소리가 더 울려나오게 하였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교장 립창호

이런 희한한 광경과 너무도 대조되는 《세월》호대항사를 빛낸 피뢰당국이 무슨 할말이 있어 낯뜨름 쳐놓고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끌고다니는가. 피뢰들이 남조선과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철면피한 인간추물들이다.

원수들이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신심드높이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헤치려는 창가마니에서 배운의 글소리가 더 울려나오게 하였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교장 립창호

미국에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 또 발생

반인륜적인 인종차별정책의 후과로 도처에서 흑인살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인권위원의 판무장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23일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청년살해사건이 또 발생하였다.

이날 밤 주의 버클리에 있는 한 휘발유공급소에서 백인경찰이 18살 난 흑인청년에게 3발의 총탄을 발사하였다. 총에 맞은 청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총에 맞은 흑인청년 살인사건이 또다시 감행한 극악한 살인만행은 현지주민들속에서 분노를 촉발시켰으며 그것은 대규모의 항의시위로 이어졌다. 시위에 펼쳐나선 수백명의 군중은 흑인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주법을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찰들이 시위집회에 광분하자 격노한 시위군중은 경찰차량들을 들부시며 위협하듯 맞서싸웠다. 시위파정에 4명의 시위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다.

사건이 벌어진 버클리는 지난 8월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에 의해 살해되어 전국적인 항의행동이 시작되었던 미주리주 퍼구스 시로부터 불과 몇km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일본의 지지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은 백인경찰청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잇달았는 속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적행위가 더욱 고조될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인륜적인 인종차별정책의 후과로 도처에서 흑인살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인권위원의 판무장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23일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청년살해사건이 또다시 감행한 극악한 살인만행은 현지주민들속에서 분노를 촉발시켰으며 그것은 대규모의 항의시위로 이어졌다. 시위에 펼쳐나선 수백명의 군중은 흑인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주법을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찰들이 시위집회에 광분하자 격노한 시위군중은 경찰차량들을 들부시며 위협하듯 맞서싸웠다. 시위파정에 4명의 시위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다.

사건이 벌어진 버클리는 지난 8월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에 의해 살해되어 전국적인 항의행동이 시작되었던 미주리주 퍼구스 시로부터 불과 몇km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일본의 지지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은 백인경찰청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잇달았는 속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적행위가 더욱 고조될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인륜적인 인종차별정책의 후과로 도처에서 흑인살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인권위원의 판무장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23일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청년살해사건이 또다시 감행한 극악한 살인만행은 현지주민들속에서 분노를 촉발시켰으며 그것은 대규모의 항의시위로 이어졌다. 시위에 펼쳐나선 수백명의 군중은 흑인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주법을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찰들이 시위집회에 광분하자 격노한 시위군중은 경찰차량들을 들부시며 위협하듯 맞서싸웠다. 시위파정에 4명의 시위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다.

사건이 벌어진 버클리는 지난 8월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에 의해 살해되어 전국적인 항의행동이 시작되었던 미주리주 퍼구스 시로부터 불과 몇km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일본의 지지통신을 비롯한 언론들은 백인경찰청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잇달았는 속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적행위가 더욱 고조될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편 죄지은 자 꼬부리고 잔다

얼마전 피뢰경찰과 경찰이 통합보당을 강제해산할때 대한 피뢰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하여 특별조치를 취하였다 한다. 그것인즉 있을수 있는 기승공격에 대처하여 《헌법재판소》의 별거지들을 특별경호대상으로 정한다는것이다. 공적에 예상되는 피뢰헌법재판소와 역적배들의 집주위에 삼엄한 봉쇄의 울타리가 쌓여있다고 한다. 결국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라 워니 하던것들이 정의와 공정성을 장그러 제비로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다가 민심의 징벌을 피해 사실상 숨어사는 신세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보호대상인 이 자들의 신세도 가궁하지만 이따위들을 보호하느라 이 한겨울에 고역

을 치르는 경찰나방들이 처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것을 두고 죄지은 자 꼬부리고 잔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저들의 파쇼망동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분노가 얼마나 뜨겁었으며 피뢰당국이 이런 공당을 다 했겠는가. 하지만 일은 이미 저지러놓은것이고 인민들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것이니 곤욕을 당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열 열리 친척지 말고 죄짓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회색의 독재판인 청와대안방주인의 치기바람에 놀아나 파쇼의 끄나불질을 하다가는 이런 가련한 신세밖에 차려질것이 없다.

허 영 민

이런 희한한 광경과 너무도 대조되는 《세월》호대항사를 빛낸 피뢰당국이 무슨 할말이 있어 낯뜨름 쳐놓고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끌고다니는가. 피뢰들이 남조선과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철면피한 인간추물들이다.

원수들이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신심드높이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헤치려는 창가마니에서 배운의 글소리가 더 울려나오게 하였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교장 립창호

이런 희한한 광경과 너무도 대조되는 《세월》호대항사를 빛낸 피뢰당국이 무슨 할말이 있어 낯뜨름 쳐놓고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끌고다니는가. 피뢰들이 남조선과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철면피한 인간추물들이다.

원수들이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신심드높이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헤치려는 창가마니에서 배운의 글소리가 더 울려나오게 하였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교장 립창호

이런 희한한 광경과 너무도 대조되는 《세월》호대항사를 빛낸 피뢰당국이 무슨 할말이 있어 낯뜨름 쳐놓고 《인권》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끌고다니는가. 피뢰들이 남조선과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철면피한 인간추물들이다.

원수들이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발악할수록 우리는 신심드높이 학교교육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헤치려는 창가마니에서 배운의 글소리가 더 울려나오게 하였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교장 립창호